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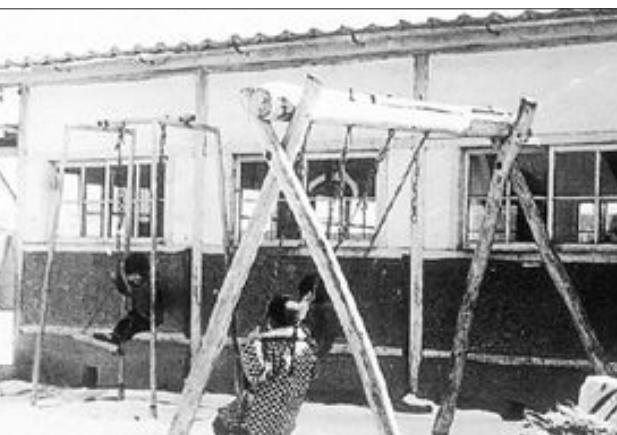
## [ 종교·복지 ]



▲ 광사리 교회(서현교회 전신) 부설 배영학교 졸업식(1932년)



▲ 서부교회(서현교회 60년대 명칭) 성가대원 일동(1960년)



▲ 서부교회 부설 유치원 놀이터(1960년)

## 지역사회 복음전파 한세기

1908년 주일학교 출발→ 1980년 5·18 시민군과 함께→ 2008년 신도 2,000명

## ■ 이달 15일 광주 서현교회 설립 100주년

광주 서현교회(담임목사 박은식)가 오는 15일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광주 지역의 오랜 역사를 지난 교회를 대부분이 배우자(유진 벨)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시작된 반면 서현교회(옛 향사리교회 혹은 서부교회)는 황장주일학교로 출발했다. 당시 거리를 배회했던 16명의 아이에게 우월순(월슨) 의료 선교사가 성경과 공부를 가르쳤다.

4년 만인 1912년 배영학교를 설립 했지만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된 데 이어, 1943년에는 총독부의 교회 통합정책으로 출입생 200여 명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해방 후 2년여 만에 교회가 복원되기까지 교회당은 죽세풀 공장으로 쓰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또 1980년에는 광주 한복판에서 광주시민과 함께 5·18 광주 민중항쟁을 겪었다. 교회 바로 앞 도로에서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당시 교인들은 예배당 지하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제공하는 일을 맡았었다.

이후 서현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복음전선을 펼치고 있다.

1908년 16명의 어린이가 전부였던 교회 신도 수는 2008년 현재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교인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초창기 배영학교 출신으로 현재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중인 최순진(83)씨도 포함돼 있다.

또 주일학교로 출발한 교회답게 현재 초등부 45개, 중·고등부 12개 주일학교반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4년 전

부터는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월드리더 스쿨'을 운영, 독서토론 및 각종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100여 년 전 이국의 선교사들이 품었던 복음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 해외 단기선교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올 초에는 13년째 사역을 펼쳐왔던 미얀마 양곤 지역에 연간 평 330m<sup>2</sup> 이상 2층 규모의 서현모비센터(육아·보육 교사 양성 신학교) 기공식도 가졌다.

배영학교의 기본정신인 '학교를 섬기는 교회'로서 교회 주변 학교의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석·송일고, 수피아여고에는 매년 두 차례씩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서현교회는 100주년을 맞아 지난 달부터는 '살름의 밤',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9



▲ 1991년에 신축된 현재 교회 모습.

일 오전 9시에는 개그맨 정종철이 '100주년 기념 전도 축제'에 참석해 신양간증도 한다. 이밖에 교회 신자와 외아이동 100명이 결연도 맺을 예정이다.

서현교회 박은식 18대 담임목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내년 살림 197억

대한불교조계종의 내년도 살립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197억 여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 등 종양종무기관은 6일 종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중장종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 사업비용을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이 특징이다. 또 경제 상황을 감안해 종단 예산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찰 분담금도 동결시켰다. /이은미기자 emlee@

## ‘정법수호’ 광주·전남 불교협 발족

## 국민주권·불자 인권 결의

보호 ▲불교 성보문화재 보호 ▲불교발전 사업 ▲시민사회 및 타 종교와의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사업,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이날 오후 2시 광주 무각사 광장에서 불교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불교협의회에는 대승사와 백양사 등 전남지역 5대 사찰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등이 지역 20여개 불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종교차별 종식 및 정법수호 ▲국민주권·불자인권 옹호 ▲생태계·사찰환경

## 종교 차별 땐 징계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특정 종교에 대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종교 편파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산 쌍암공원서 인권 문화제

주요행사는 어린이 출범기 공연 단과 장애인 아ه티팀의 연극공연이 펼쳐지며 장애인권과 관련된 사진전 및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신청자에 한해 접수 명함도 만들어 준다.

이밖에 여러 가지 장애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되고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문의 062-432-8025. /이은미기자 emlee@

## 장애인-비장애인 마음의 벽 허문다



영화보디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미가박스**

구. 편안한 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3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4관 이글아이** (12세)

**5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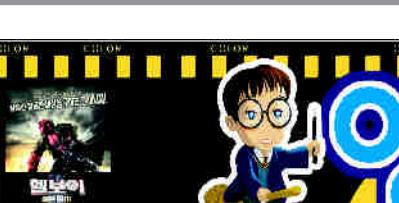
**6관 화피** (15세) / **굿바이** (12세)

**7관 소년은 울지 않는다** (15세)

**8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9관 뱅크 잡** (15세)

• 이프루 푸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침상요금 부과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맨데이트** (18세) / **맘마미아** (12세)

**3관 너를 잊지 않을거야** (전체)

**4관 데스 레이스** (18세)

**5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6관 미쓰홀딩무** (18세) / **바빌론AD** (12세)

**7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8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9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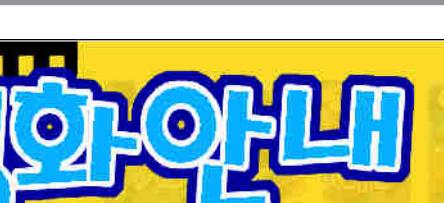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아 상영합니다

www.entercinema.co.kr

• 네고판타 푸차장 주차장 300대 ◎금토 실아상영

• 미트 푸차장 10개방

• 점촌리 상영장



한분시장 영화시네마 • 예매: www.joycbo.com/ 1588-7941

상국점·하남점

**콜롬버스 시네마**

상구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원과 맞은편)

**1관 말마미아** (18세) / **뱅크 잡** (15세)

**2관 플레이 미 투 더본** (3D) (전체) / **굿바이** (15세) / **맨데이트** (18세)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4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5관 소년은 울지 않는다** (15세)

**6관 이글아이** (12세)

**7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8관 너를 잊지 않을거야** (전체)

**9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10관 007원텀 오브 솔러스**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아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동원점과 병영점은 1588-7941

영화관은 1588-7941